

# 전북·경남, 웰니스산업 추진 위한 포럼

### 13개 시·군 주축으로 300억원 규모 자연·농업농촌 활용 협력 추진... 2022년 국비 확보 총력

전북도와 경남도가 영·호남을 뛰어 넘는 협력으로 국비 확보에 나선다. 전북도는 (가칭) '개인맞춤형 웰니스산업 플랫폼 구축'을 위한 합동포럼을 전북도청 공연장에서 지난 23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북·경남 공무원 등 4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포럼에는 원광대 전병훈 교수가 좌장을 맡고, 네이버 클라우드 플랫폼 류재준 담당 이사, 비타믹스 박주연 대표, 경남대 김현준 교수, 한국한의학 이상훈 책임연구원이 발제에 나섰다. 토론에는 한·식·연 장대자 책임연구원과 (주)인산가 우성숙 연수원장이 합류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각 도의 출연기관인 전북·경남 테

크노파크가 초광역사업으로 제안한 이번 사업에 대해, 전북과 경남은 한국관 뉴딜 사업으로 판을 키운다는 계획이다.

'개인맞춤형 웰니스산업 플랫폼 구축' 사업은 휴식을 위해 여행을 계획하는 도시민에게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과 힐링 체험, 체형에 맞는 건강한 먹거리 제공, 농촌 살아가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전북·경남 13개 시·군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을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유통망을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총 사업비 300억원 규모의 이번 사업은 자연과 농업농촌을 활용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전북 동부권 6개 시·군(남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과 경남 서부권 7개 시·군(의령, 고성, 하동, 산청, 함양, 거창, 함천)이 주축이 된다.

전북 동부권과 경남 서부권은 상대적으로 개발이 늦어 자연경관과 한국을 대표하는 지역 특산품을 많이 보유하고, 농업농촌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 등을 두루 갖추고 있어 웰니스산업을 추진하는데 가장 이상적인 지역으로 꼽힌다.

또한, 전북 6개 시·군과 경남 7개 시·군은 보유한 관광자원, 식품(홍삼, 사과, 한우, 죽염, 장류, 녹차 등), 화장품 원료(허브, 약초 등)와 기능성 식품 원료 등을 생산하는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고, 사업 내용이 건강을 중요시하는 현대인들의 욕구와 맞아 시

대에 부응하는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발제와 토론에 나선 전문가들은 "웰니스산업은 국가보다는 지자체가 먼저 추진하는 것이 적합하다"며 "전북과 경남이 보유한 농업농촌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분명히 시대에 부응하는 사업을 선점하는 것이며, 국내는 물론 해외시장까지 개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강조했다.

한편, 전북과 경남은 이번 포럼을 바탕으로 사업계획서를 더욱 구체화하고, 전북·경남 합동회의를 거쳐 2022년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유호상 기자

##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 판매

### 전북도,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 대비 가입 당부

전북도가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지역농협 등을 통해 농작물 재해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도는 농작물재해보험 과수 4종은 오는 3월 5일까지 판매하며, 농업용 시설, 시설작물 등은 2월 2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상품을 판매 예정이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아울러, 올해 총 67개 품목이 과수기 등 재배시기에 맞춰 운영된다.

가입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며, 가입을 희망할 경우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농협 또는 품목농협을 방문해 직원의 안내에 따라 가입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지난해 도내에는 이상저온과 우박, 집중호우, 태풍 등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나, 농작물재해보험으로 농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됐다. 지난해 농작물재해보험 보험료 607억 중 국가, 도, 시군에서 503억

원을 지원해 농가부담은 104억원이었으나, 보험금은 약 10배인 1,084억 원이 지급됐다.

올해 도내 농작물재해보험 예산은 600억 원으로 국가가 50%, 도와 시군에서 30~45%의 보험료를 지원해, 농가는 시·군별로 차이가 있으나 최대 20%만 부담한다.

또한 지역농협에서 추가로 최대 20%까지 지원, 군산, 익산, 완주, 진안의 경우 품목이나 조합원 가입여부 등 조건에 따라 농가부담 없이도 가입이 가능하다.

최재용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예측이 어려운 기상이변 등 자연재해로 농작물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져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작물 재해보험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호상 기자

## 연명의료결정제도 도입 3년 5만2000여 명 도민 등록

연명의료결정제도가 도입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5만2,000여 명의 도민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는 지난 2018년 2월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처음 시행된 이후, 의향서를 작성한 도민이 2021년 1월 기준 전국 80만명 중 5만2,372명(6.5%)으로 서울, 경기, 충남,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높은 등록률을 보인다고 24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44% 감소한 수치로, 코로나19로 인해 대면 접수가 힘들어 1년 동안의 등록률이 낮아진 것으로 보여진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의 사람이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었을 때를 대비해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밝혀두는 것으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해 작성해야 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윤리위원회와 협의를 설치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은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 및 그 이행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전북도는 연명의료결정법 시행(2018. 2. 4.)에 따라, 도민의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권리를 위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과 '연명의료결정서 작성·이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와 사업추진을 위한 공모를 추진하고 있다.

/유호상 기자



이노폴리스 혁신 스타트업 투자 IR·상담회 개최했다고 밝혔다. 3회 차를 맞이한 이날 행사는 전북 연구개발 특구 내 위치한 기업 6개사가 참여해 기업 투자유치를 위한 발표와 투자유치 상담을 진행했다.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센터장 박광진)와 전북연구개발특구본부(본부장 서동경)는 24일 '이노폴리스 혁신 스타트업 투자 IR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

## 전주 평화동에 '온평' 개소

### 전북도,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주민 공유공간 취약계층 발굴·지원 등 통해 돌봄시스템 구축

전북도는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 지원사업인 '평화동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지·지케어(지역민이 지역민을 돌볼)'의 소통공간으로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인근에 '온평'을 설치하고 개소식을 가졌다고 24일 밝혔다.

〈관련기사4면〉

지난 2020년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시작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은 저소득층 밀집 지역 등 복지기반이 부족한 마을 단위에 3년 동안 행·재정적 지원을 집중함으로써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지난해 공모 결과 전국 6개 시·도에서 8개 시·군이 선정됐다.

도내에는 전주시 평화동의 '평화동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지·지케어' 사업이 선정되며, 지난해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 국비 4억2,000만원과 도비 4억5,000만원 등 총 8억7,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지·지케어 사업은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중심으로 마을리더를 양성

및 마음치유 프로그램, 사례 관리 등을 통해 돌봄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마을벽화 그리기, 텃밭 가꾸기, 나무심기, 순환자원 회수 로봇 운영 등을 통한 마을환경개선, ▲음악회 및 효문화제 등 문화사업으로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민관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지역공동체 만들기 등을 통해 따뜻한 평화마을을 만들어 갈 예정이다.

이날 개소식이 열린 '온평'은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의제도 선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도 운영하면서, 입주민들이 편하게 휴식도 취할 수 있는 주민 공유공간으로 평화동 영구임대아파트 옆에 마련됐다.

황철호 도 복지여성보전국장은 "평화동 다시 세우기 프로젝트 지·지케어 사업이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살기 좋은 곳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도에서 관심을 갖고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수산분과 포럼 온라인 개최

전북도는 도내 수산물의 판로 확장과 수산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삼락농정위원회 수산분과 포럼을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전북도 수산식품개발 및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은 전북도 삼락농정위원회 수산분과가 주최하고, 전북연구원 주관으로 전북연구원 영상회의실에서 화상회의 앱(xoom)을 활용해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날 포럼은 삼락농정위원회 수산분

과 권영주 위원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주문배 명예연구원 '세계 수산식품 소비트렌드와 전북도 수산식품개발 방향'을 (주)벨리스 강민준 대표가 '수산물을 활용한 청년스타트업 창업 및 식품개발 사례'를 각각 발표했다.

이후, 군산대학교 박관하 학장의 진행으로 수산물 생산, 가공·유통, 식품분야의 전문가 및 수산업 관계자들이 전북도 수산식품 개발 방향을 주제로

적극적인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에는 김종학 대표이사(참바다영양조합법인), 김철호 회장(한국자라생산지협회), 배민정 부장(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기술지원부), 이은미 본부장(전북생물산업진흥원), 이용선 과장(전북도 수산정책과)등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타 시·도 지자체, 수산업 관계기관 및 업체와 어업인 등 60여 명이 영상으로 참여했다.

/유호상 기자

## 분묘개장공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구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전북 장수군 장수읍 선창리 산 64-5번지 (1기)
2. 개장시유
  - 재산권행사
3. 개장방법
  - 가) 유연분묘: 공고기간중 연구자 확인시 협의 개장
  - 나) 무연분묘: 공고기간 경과후 관계법률에 따라 임의개장
4. 안치장소: 전북 김제시 만경읍 화포3길 54-9 영락원 063-544-0869
5. 안치기간: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6. 공고기간: 최초공고일로부터 3개월
7. 신고처: 고관호(010-3682-6157) 전북 장수군 장수읍 구시장길7
8. 신고시 구비서류: 신고자(연구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명서(죽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9. 기타사항: 개장공고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21년 2월 24일  
위 공고인: 고 관 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jmaeil.com